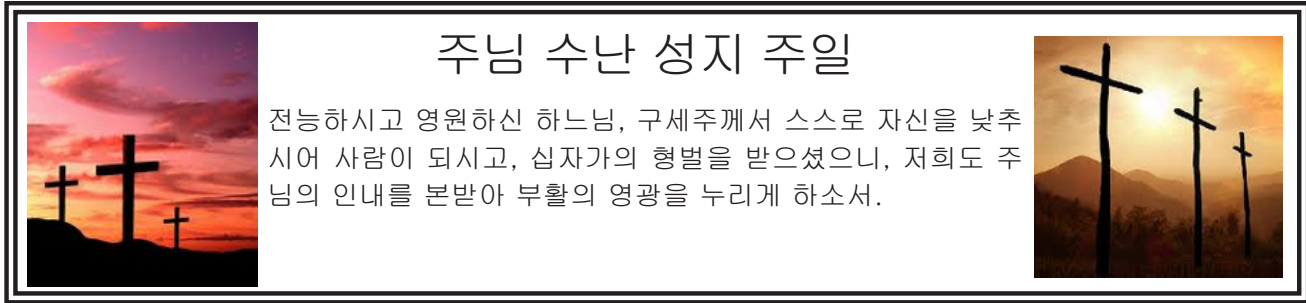


### 공동체 소식



#### 4월 기도지향

- 김정원 베드로, 박말자 세실리아 가정
- 김정한 요한, 윤유나 글라라 가정

#### 파스카 성삼일 전례 안내

- 성유 축성 미사 : 4/15(화) 오전 11시, 교구청 채플
- 주님 만찬 미사 : 4/17(목) 오후 8시, 밤샘성체조배(회관)
- 주님 수난 예식 : 4/18(금) 오후 8시, 십자가의 길(오후 3시)
- 부활 대축일 밤미사 : 4/19(토) 오후 8:30
- ☞ 4/15(화) 오후 7시 30분, 본당 미사는 없습니다.

#### 세례식

- 일시 : 4/19(토) 오후 8시
- 장소 : 성당
- 대상 : 유아 4명, 성인 3명

#### 성 목요일 밤샘 성체조배

구분	시간	배정
1	09:00 - 10:00	성가대
2	10:00 - 11:00	3구역
3	11:00 - 12:00	2구역
4	12:00 - 01:00	1구역
5	01:00 - 02:00	평협

#### 기타

- 오늘(4/13), 평협회의를 앞당겨서 합니다.
- 부활대축일 꽃봉헌을 받습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성경 쓰기와 Rice Bowl은 제대 앞 바구니에 개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Rice Bowl의 금액은 체크(혹은 캐쉬)로 변환해 주시면 교구 송금에 도움이 됩니다.
- 세족례 대상자 : 김호원, 김창식, 한봉경, 김정원, 양경직, 김정한, 유길수, 배갑원, 이우석, 전영민, 감영진, 홍순익 이상 12명.
- 부활 대축일 밤미사 독서자 : 신은채(2독서), 정병훈(3독서), 최선운(5독서), 김병철(7독서).

####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마 침
121	511	163/170	119

####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정수한(베드로)	차호섭(요셉)
	정병훈(보니파시오)	이우영(가브리엘)
차주	어린이 복사 전체	

☞ 파스카 성삼일 복사 차례는 전례부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 파스카 성삼일 독서자는 전례부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박정옥, 박정자, 최은미
차주	다함께

####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4/6	83명	356불	1,480불
이현주, 박성기, 김대성, 이영민, 홍순익, 김정한, 이우영, 차호섭, 양경직, 이우석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4월 13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한인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우리는 오늘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의 전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호하는 군중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반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없다면 우리의 환호는 변덕스러운 열광일 따름입니다. 역경 중에도 참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은총을 청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에 참여합니다.

### 성화해설

붉은 옷을 입은 성자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마태 27,28-30)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누가 인류를 죄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로팔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 50,4-7 <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 어찌하여 - 저를 버리시나이까 -

- 사람마다 저를 보며 업신여기고, 머리를 끄덕대며 비쭈거리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렸다. 그를 사랑하시니 빼내 주시렸다. ◎
- 술한 개들이 저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 이 몸을 에워쌌나이다. 그들은 제 손과 발을 사뭇 뚫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저희끼리 제 겹옷을 나눠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 재비 뵈나이다. 주님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구원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거례에게 전하고, 그 모임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오리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찬양하여라. 야곱의 후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모두 다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 독서 : 필리 2,6-11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수난복음 : 마태 26,14-27,66<또는 27,11-54>

# 쉐 마

##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 아드님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두실 수 있을까요? 멀리서 지켜보시기는 하셨을까요? 이런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면, 배척, 조롱, 멸시당하며 죽어갈 때, 하느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 우리는 가끔 가정을 해봅니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수난기를 듣고, 여러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있고 싶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해보려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은 돈 서른 닢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의 수난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십자가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가 하려는 일을 알아차렸다면, 그래서 유다를 막았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하느님께 당신이 받을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겟세마니 동산에 유다가 데리고 온 백성의 무리들이 마음을 돌려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켰다면, 무리들과 맞서 싸우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다면. 카야파 대사제 집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수석 사제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강력히 예수님을 도와주었다면.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군중이 바라빠 대신 예수님을 원했다

면. 정말 많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디 한 군데에서만 예수님을 도왔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비켜갈 수 있는 수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길을 정확히 짚어 가셨습니다. 한 곳만이라도 비켰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이 가정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배척당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매 맞고 모욕당하고 죽는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군중의 동요를 두려워하듯, 제자들이 잡혀갈 것 같아 도망치듯, 은 돈 서른 닢이 좋아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도 믿고 싶지 않은 제자들이 유다를 의심하지 않듯,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정했던 일들을 보면, 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다, 제자들, 사제들, 빌라도, 군중 다 우리들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을 시작하고 진행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손에 당신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탄생, 성장, 죽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하느님 당신 손에서 우리들 손에 맡기셨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기는 이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랑과 자비, 빛이신 하느님께서로부터만이 나올 수 있는 전적인 신뢰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이 수난 받을 때 옆에 없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수난에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 주춧돌

## 제 1 편 하느님 공경

### 제1-1장 하느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으신다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젓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3-15).

#### < 설명 >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가르친다.

모성애는 대단하다. 쥐의 모성애를 실험하였다. 며칠 굶긴 쥐들을 상자에 넣고 전기선이 깔린 통로 저편에 음식을 놓아두었다. 쥐들은 그 음식을 먹으려고 통로를 지나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 전기 감전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끼가 딸린 어미 쥐를 상자에 넣었더니, 어미 쥐는 전기가 감전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통로를 지나 먹이를 물고 왔다. 모성애는 그토록 강하다. 하느님께서서는 부성애와 모성애를 동시에 지니고 계시고, 그 부성애와 모성애는 비할 바가 없다. 비록 여인이 제 젓먹이를 잊는다 해도,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 < 교회 가르침 >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된다. 이 사랑은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강하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요한 3,16; 교회의 가르침 219항).

#### < 어록 >

- 모든 세상일을 생각하여 보면 실로 허무한 것뿐이고 슬픈 것뿐이외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거칠고 허무한 세상에 있어서 자기의 조물주이시며 다시없는 천주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난 보람이 있으리오(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옥중 편지).

-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기쁨이 있고 지극한 행복이 있습니다(복녀 마더 테레사)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